

기부런 -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방법

- 2PO -

1. 프로젝트 소개

[기부런 -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방법]

‘기부런’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기부 시스템을 제시하고 투명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기부 문화를 선보이며, 이를 통해 기부와 코인의 가치를 높입니다.

<프로젝트 배경>

기존의 기부 플랫폼들을 분석한 결과 기부 목록이 많아 목표액을 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Web2 기반 시스템으로 기부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용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부런’이라는 서비스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목표>

‘기부런’을 통해 기부자들과 수혜자들을 직접 연결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기부 수혜자들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미래 사회에 발맞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선행사례 분석>

기존 기부 플랫폼은 기부 목록이 많아 목표액을 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Web2 기반 시스템으로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선행사례와의 차별점>

기부 사업을 기부 진행과 대기 목록 둘로 나누고, 토큰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대기 중인 기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부한 코인 내역을 거래 내역 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기부 시 지급되는 NFT, 기부 순위 같은 콘텐츠를 통해 기부에 활기를 더합니다.

<기대효과 및 확장성>

사회적 약자가 Web3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CBDC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코인으로 기부함으로써 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부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서울런’과 ‘기부런’ 그리고 ‘에코런’으로 이어지는, 서울시를 대표하는 릴레이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2. 선행사례 분석



사진 1. 사랑의 열매, 해피빈, CHERRY

2-1, 사용자의 접근을 떨어뜨리는 페이지

기존의 플랫폼들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취지로 페이지에 많은 기부 콘텐츠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2>의 ‘해피빈’ 기부 페이지처럼 수백 개의 기부 페이지가 한 화면에 담기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어떤 사업에 기부해야 할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좋으나, 너무 많은 콘텐츠는 사용자들이 선택을 포기하거나 기부를 미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진 2. ‘해피빈’ 기부 페이지 축소 사진

2-2, 투명하지 않은 기부 서비스

누구나 기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돈이 기부 수혜자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진 3>처럼 기부 플랫폼들은 항상 자신들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사용 출처를 밝히거나, 전달 과정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부 서비스

는 ‘중개인’이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조작하거나, 숨기면 그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진 3>과 같이 기부 단체의 비리와 악용 사례는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투명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 기관들을 차원에서, 지역 무연가족, 장애아동, 국경선사환자를 위한 대한민국 대표 나눔운동입니다.

기부금의 **94%**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됩니다.

2019년 모금금액 **7,925억** / 2020년 모금금액 **7,334억**

출 > 사회

비리로 썩은 '사랑의 열매'

f t y n o

업무용카드 단한주점서 사용... 공금으로 스키레프팅...

불우어웃돕기 성금을 내면 빨간 '사랑의 열매'를 달아주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그동안 국민들이 낸 돈의 성금으로 천태만상의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금으로 직원들이 스키레프팅·바다 낚시를 즐기는가 하면 유흥주점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대구잡이로 쓰는 것은 예사였다. 최근 3년간 공동모금회 직원 급여 인상은 9%로 공공기관의 인상률(3%)의 세배에 달하는 등 국민 성금으로 '성과급 파티'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진 3. 모순된 ‘사랑의 열매’

3. 선행사례와의 차별점

‘기부런’은 위와 같은 플랫폼들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차별점과 구현한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3-1. 토큰을 통한 투표 시스템

‘기부런’은 많은 사업들을 단 6개로 줄였습니다. 대신, ‘기부 대기’를 운영합니다. ‘기부 대기’ 페이지에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사업들이 올라가게 되고, 2PO토큰을 통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기부 진행 중인 사업이 종료되면, 가장 많은 토큰을 받은 사업이 다음 진행 사업으로 선정됩니다. 2PO토큰은 사용자가 기부한 금액의 10%로 지급됩니다.



사진 4. ‘대기 중’ 및 ‘진행 중’

3-2. 투명한 거래내역

완벽한 ‘투명’과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 내역을 확인해도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기부런’에는 거래내역을 이용자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록체인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행해지는 사용자의 모든 활동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이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현하면서 진정한 ‘투명성’을 이루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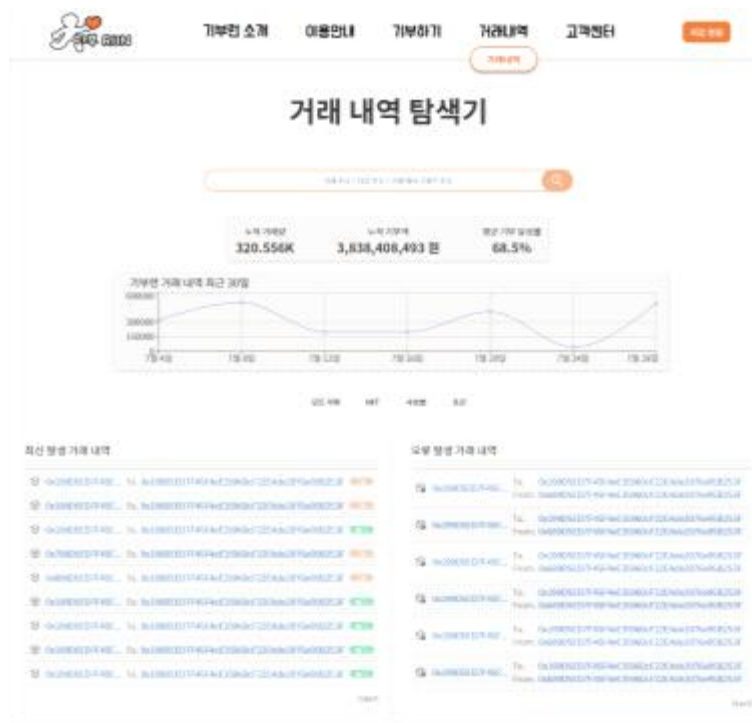


사진 5. '기부런'의 '거래내역' 페이지

3-3. 기부에 활력을 주는 콘텐츠

'기부런'은 사용자가 단순히 기부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즐겁게 기부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활력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기부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기부하는 개인도 지급받은 NFT를 자신의 PR로 활용하고, SNS에 인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랭킹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이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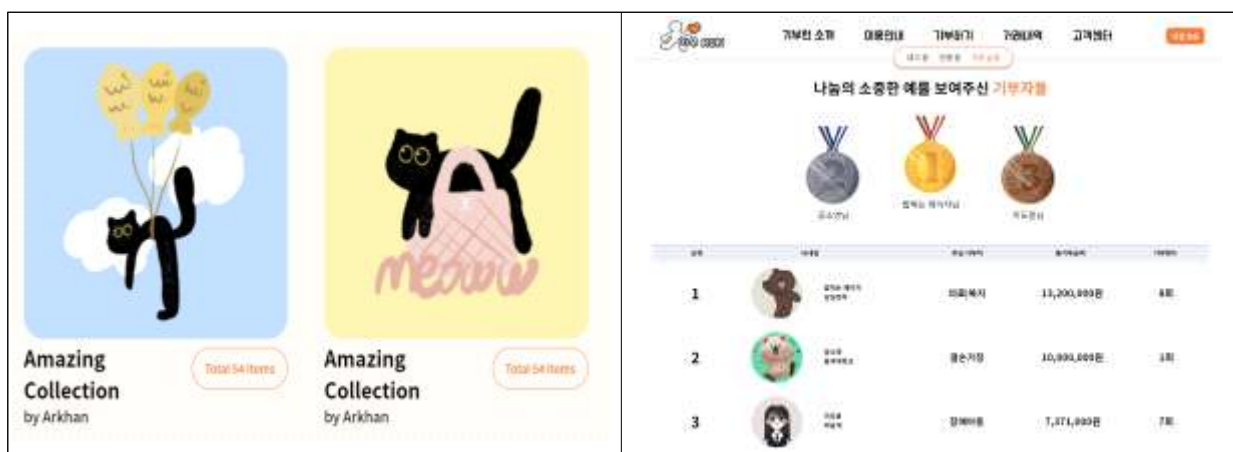


사진 6. '기부런'의 NFT

4. 기대효과 및 확장성

4-1 기대효과

첫 번째. '사회적 약자'에서 'Web3 구성원' 그리고 'CBDC'

최근 대한민국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실험을 하는 가운데 7월 31일, 한국은행이 CBDC결제 시범 지역으로 제주, 부산, 인천을 선정했습니다. '기부런'이 제공한 Web3 교육을 받은 기부 수혜자들은 CBDC와 같은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부 문화와 블록체인 생태계 영향력 증대

'기부런'은 사회적 문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부자들과 기부 대상자들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런' 이용자가 많아진다면, 논코이너(Non-Coiner)들도 '기부런'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 블록체인 생태계의 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세 번째. 코인에 대한 시선의 변화

일반인들에게는 '코인'과 관련하여 사기와 투기에 이용된다는 이미지가 있어,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기부런'을 통해 사람들이 코인으로 기부하고, 모금 사례가 매체를 통해 알려진다면 일반인들도 코인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4-2 확장성

첫 번째. 서울시 릴레이 콘텐츠

저희는 '기부런'을 서울시가 진행 중인 '서울런'을 잇는 콘텐츠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릴레이 콘텐츠는 '기부런'에서 그치지 않고 환경, 동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진 7. 릴레이 콘텐츠

두 번째. 플랫폼의 확장

'기부런'이 성장하게 된다면 서울시를 출발점으로 하여 전국과 세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기부 사업의 수를 늘려 기부량을 증가시키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테더 외에 스테이블 코인들을 추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